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성미애
(주) 한국리서치
연구원 신기영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Lecturer : Sung, Miai

Hankook Research Co., Ltd.

Associate Director : Shin, Ki Young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value about family and kinship in urban and rural familie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716 subject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Seoul and 593 subjects in rural areas.

From this survey, w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In urban families, most of the respondents are found not to support familism, materialism, boy preference, and they show an ambivalence about the child value in the viewpoint of the reward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임.

- and the cost.
- 2) Most of the respondents in rural families are found to support familism, materialism, and rewardable child value. But, as the same as urban families, they don't show boy preference.
 - 3) Comparing urban families with rural families, the latter are found to support familism more strongly. And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in boy preference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urban families are found to show costly child value more strongly.

I. 문제 제기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사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의 모습, 더 나아가 탈근대사회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치관의 혼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가치관 등 다양한 색채의 가치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광복이후 50여년 동안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조직 원리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서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다(옥선화, 1996: 1). 즉 포괄적인 사회 변화가 가족 및 친족간 상호작용에도 많은 변화¹⁾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체제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별 가족과 관련되는 가치는 농경사회의 집합주의 원리인 가족주의가치의 틀 속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관련되는 가족 및 가족관련 가치관은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일치되지 않은 채 근대적인 모습과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공존하게 되었으며(옥선화 외, 1996: 1), 현재는 탈근대적인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일상생활의 행동의 준거가 되는 가치관을 지역별,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가치관은 개인에게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주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규범을 제공(정범모, 1989: 23)해 준다. 그러므로 가치관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치관은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김태길, 1982: 169), 가치관을 파악하게 되면 이후의 행동 경향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산업사회에 진입한 뒤 사회의 제반 요소를 재정비하기도 전에 또 다시 정보화, 개성화, 다양화가 중시되는 후기 산업사회를 맞게된 경우에는 전통적인 요소, 근대적인 요소 및 탈근대적인 요소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생활을 주도하는 가족 및 친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근대화의 과정은 균등화(equalization)의 과정이면서도 또한 차별화(differentiation)의 과정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내용은 균일하게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 세대,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한다(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5: 47). 그러므로 어느 시기보다 현재는 개인이 속하는 다양한 집단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관 관련 연구들(김경동, 1992; 김태길, 1982; 임희섭, 1986; 정준, 1997; 한승조,

1) 이러한 사회변화가 가족 및 친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1945년에는 총인구의 4/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제 3차 산업에 고용된 인구가 50%를 상회하였으며(심윤중, 유홍준, 박승희, 1995: 140), 이러한 고용구조에 따라 인구의 도시화 추세가 급증하게 되었다(권태환 외 13인, 1996: 65). 그 결과 농촌가족의 경우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결국 농촌인구는 노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집약된다(이한기·한귀정, 1994).

1980 등)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라는 두 축만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에서 보이는 전통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근대적, 탈근대적인 모습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가족주의가치, 물질주의가치, 보상적·비용적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족주의가치와 남아선호사상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家의식과 남아선호 의식의 잔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질주의가치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보였던 ‘富의 축적이 곧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탈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탈물질주의적 생활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견해(정준, 1997)를 실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가치관이 될 것이다. 또한 보상적·비용적 자녀관은 자녀에 대해서 긍정·부정의 개념조차 갖지 않으면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자녀출산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자녀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치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보이는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도시, 농촌 내에서 하위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세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 변화 추세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관련변수 별 차이는 어떠한가?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격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고찰

1. 가족주의가치

가족주의가치는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손인수, 1978: 65)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주의가치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이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며, 가족의 원리가 가족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지지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므로 가족주의가치는 가족과 친족집단의 공동체적 유대의 존속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김한구, 1982: 5-27)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주의가치의 속성으로 볼 때, 가족과 친족이 한 개인의 생존토대가 되었던 사회에서는 개인의 태도, 신념 및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가 높을 수 있으나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으로 인해 가족과 친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관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어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를 조사한 연구(옥선화, 1989)를 살펴보면, 현대 산업사회에서까지 가족주의가치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는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공식교육의 이념으로서 가족주의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주의가치를 내면화한 정도는 개인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도시 경험이 적을수록 가족주의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에 따라 관계상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욕구 및 개성이 강조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이해에 따라 가족주의가치를 내면화한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개인의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물질주의가치

물질주의가치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을 판단하거나, 또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다. 산업사회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물질적 富의 경쟁적인 축적과 과시적 소비가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인은 물질을 숭상하게 되었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탁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임희섭, 1986: 56-57; 김태길, 1982: 168). 즉 우리 조상들은 금전 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은 권장할 만한 태도가 못되며, 분수에 맞는 생계를 피하는 것이 긍정되었고, 금전이나 재물 그 자체를 본래적 가치로서 추구하는 것을 저속한 삶의 태도로 보았다(임희섭, 1986: 56-57).

한편, 물질주의가치 자체는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도 나타나며, 오히려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보이는 경향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김경동(1992)은 60-70년대에 이미 일부 계층에서는 기본적 욕구 충족 차원의 물질 추구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었으며,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을 조선 중·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성영신·김철민·고동우, 1997: 239)에서도, 우리 전통 문화에도 금전의 초유능성에 대한 신념은 명백히 있어 왔으며, 단지 서구 자본주의의가 유입되면서 황금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강화시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모를 살펴본 연구(정준, 1997: 83)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민 대다수의 평균적인 생활관 그 자체는 과거의 물질주의 일변도의 태도에서 점차 탈물질주의적 생활관으로 이행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첫째, 이전의 경제성장과 기술향상에 따른 상당 수준의 물질적 충족 달성, 둘째, 고학력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셋째, 기성세대와 사고를 달리하는 새로운 풍요세대의 등장, 넷째,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국제화의 획기적인 진전 등을 들었다.

따라서 물질주의가치가 어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보상적·비용적 자녀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들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부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는 존재이고, 가족 형태를 완성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보상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의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자녀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이효재, 1989: 240), 자녀가 주는 보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모됨에 대한 수용과 실제적인 자녀양육과는 별개이므로 그로인한 신체적 긴장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DINK족의 출현과 같이 자녀를 갖는 것에도 선택의 개념이 들어오며, 사회 일부에서는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도 등장하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체도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된 측면을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상과 비용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은 자녀 중에서도 가문의 代를 이을 수 있는 남아를 선호하는 정도로,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의 존재를 가문의 영속과 관련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문의 代를 이을 수 있는 남아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반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공보처, 1996; 서병숙·김윤, 1983; 정영숙·이선자, 1980; 통계청, 1990)에서는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자녀를 한명 가져야 한다면 남아이든 여아이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아가

좋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혼 여성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청, 1990)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이유로 아들은 마음이 든든하고(39.7%), 가문을 잇고 제사를 위해 필요하다(33.4%)는 등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혼남성이나 예비부모세대를 중심으로 남아선호사상을 살펴본 연구들(고정자, 1983; 양명숙, 1996)에서는 두 자녀가 딸일 경우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문항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등 비교적 근대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하였다. 단지 남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아선호사상을 다양한 집단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서울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 지역의 경우 서울통계연보²⁾(통계청, 1996)를 토대로 해서 성(性),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지위를 고려해서 720개의 표본을 비례적 층화 추출하였다³⁾. 예비조사는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남녀 각각 1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에 1997년 12월 20일부터 1998년 1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대상을 보완하기 위해 1998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716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농촌 지역 조사는 통계청(1995)에서 발간한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의 읍면 이하 지역의 인구수를 토대로 지역을 할당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⁴⁾. 농촌 지역의 예비조사는 1999년 4월 3일부터 1999년 4월 15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93명이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가족주의가치 척도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인덕, 1979; 옥선화, 1975; 유영주, 1976; 최재석, 1966; 홍승직, 1971)을 참고로 하여 옥선화(1989)가 작성한 가족주의가치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문항수는 모두 21문항이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자료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질문 문항수를 줄이고자, 도시 지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 결과, 가족우선성 영역에서 배우자선택 기준과 가족관심, 부계가문의 영속화에서 주의 의미, 가문의 발전, 부모공경의식에서 장남의 부모동거, 의사결정 의존,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서 부계지원, 친척지원 관련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8문항은 전체 척도의 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단히 반대하는 경우에 1점, 대단히 찬성하는 경우에 5점을 주어, 도시 지역의 경우 전체 문항의 총점은 21점에서부터 105점이 되며, 농촌 지역의 경우 8점에서부터 40점이 된다. 따라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지

2) 1996년에 출판된 제36회 [서울통계연보]는 1995년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인구분포를 집계한 것이나 혼인상태별 인구는 1990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1990년 분포에 따라서 표집을 하였음.

3) 도시지역의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옥선화 외(1998) 참조.

4) 농촌지역의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옥선화 외(미게제) 참조.

지하는 정도가 높다.

2) 물질주의가치 척도

물질주의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물질주의와 소비성향을 연결시킨 선행연구들(송인숙, 1993; Belk, 1984; Richins & Dawson, 1992)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을 물질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부여와, '나'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모두 10문항이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자료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질문 문항수를 줄이고자, 도시 지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6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전체 10문항의 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도시 지역의 경우 전체 문항의 점수는 10점에서부터 50점이 되며, 농촌 지역의 경우 6점에서부터 30점이 된다. 따라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가치 성향이 높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 척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과 비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Fawcett, Albores & Arnold, 1972)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에는 존재적 보상, 정서적 보상, 부모 개인의 성숙에 미치는 보상, 결혼의 의미에 미치는 보상 등 6 문항, 비용에는 신체적 비용, 행동제약의 비용, 부부 관계에 미치는 비용, 경제적 비용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12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전체 문항 중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의 총점은 6점에서부터 30점이 되

며, 비용의 총점도 6점에서부터 30점이 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적 자녀관, 비용적 자녀관 수준이 높은 것이 된다.

4) 남아선호사상 척도

남아선호사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부계 계승의 측면에서 남아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가족학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6인이 논의를 하여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때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정답을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합의를 하여 '딸'의 경우로 대체하여 질문하였다. 즉 딸이 둘인 경우에도 자녀를 낳아야 하는 문항, 딸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다는 문항, 딸이 둘 있는 경우 남들에게 말하기가 싫다는 문항, 딸보다 아들이 잘되어야 그 집안이 잘된다는 문항, 딸은 시집가면 그뿐이라는 문항 등 총 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전체 문항의 총점은 5점에서부터 25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다.

3.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5인의 가족학자들간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증한 후 구성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주제를 선정한 후, 각 주제에 맞는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거주자를 조사한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주의가치는 .86, 물질주의가치는 .83, 자녀에 대한 가치관 중 보상적 자녀관은 .78, 비용적 자녀관은 .68, 남아선호사상은 .80이다. 농촌 거주자를 조사한 척도의 경우 가족주의가치는 .79, 물질주의가치는 .77, 자녀에 대한 가치관 중 보상적 자녀관

은 .73, 비용적 자녀관은 .69, 남아선호사상은 .87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 및 두 지역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평균, 표준편차, t 값을 구하였다. 둘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관련변수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oneway ANOVA, t-test를 하였고, 성과 연령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two-way ANOVA를 하였다.

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표 2〉를 보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은 낮았으며, 직업지위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형태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농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노부부 가족 및 독신 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의 전반적 경향

1) 가족주의가치의 전반적 경향

도시 거주자는 가족주의가치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의 범위: 21점-105점, 평균값: 56.58점). 특히 '미혼 형제

〈표 1〉 도시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집 단	빈 도(%)	특 성	집 단	빈 도(%)
연 령	10대	78(10.9)	종 교	기독교	266(37.2)
	20대	202(28.3)		천주교	84(11.7)
	30대	188(26.3)		불 교	151(21.1)
	40대	125(17.5)		무 교	199(27.8)
	50대	86(12.0)	성장배경	도 시	449(62.9)
	60대	35(4.9)		농 촌	265(37.1)
성 별	남성	368(51.5)	가족형태	핵가족	577(80.0)
	여성	344(48.5)		부계확대가족	100(14.0)
교육수준	초졸	47(7.5)		모계확대가족	28(3.9)
	중졸	59(9.5)	직 업	주부	154(21.8)
	고졸	318(46.1)		학생	125(17.6)
	전문대졸 이상	254(36.9)		은퇴·무직	35(5.0)
소득수준	150만원 이하	79(11.2)		전문기술·경영	49(7.0)
	250만원 미만	265(37.6)		사무직	174(24.7)
	350만원 미만	220(32.0)		생산·기능·서비스	27(3.9)
	500만원 미만	78(11.1)	자영업	101(14.3)	
	평균 소득수준 265만원		주거형태	아파트	247(34.6)
결혼지위	미혼	220(30.7)		단독주택	119(16.7)
	초혼	474(66.2)		상가·다가구	120(16.8)
	재혼	4(0.6)		임대주택	25(3.5)
	사별	18(2.5)		연립·빌라	200(28.2)

〈표 2〉 농촌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집 단	빈 도(%)	특 성	집 단	빈 도(%)
연 령	10대	79(13.7)	종 교	기독교	158(26.8)
	20대	105(18.2)		천주교	37(6.3)
	30대	98(17.0)		불 교	199(33.7)
	40대	100(17.4)	무 교	188(31.9)	
	50대	96(16.7)	가족형태	핵가족	331(55.8)
	60대	98(17.0)		부계확대가족	158(26.6)
		모계확대가족		4(0.7)	
성 별	남성	290(49.4)	노부부·독신가족	80(13.0)	
	여성	297(50.6)			
교육수준	무학	21(4.1)	직 업	농업	200(34.4)
	초졸	135(26.8)		주부	85(14.6)
	중졸	83(16.5)		학생	128(22.0)
	고졸	161(32.0)		은퇴·무직	24(4.1)
	전문대졸 이상	103(20.5)		전문기술·경영	13(2.2)
				사무직	47(8.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39(23.8)		생산·기능·서비스	30(5.1)
	150만원 미만	162(27.7)		자영업	48(8.2)
	200만원 미만	105(17.9)		주거형태	아파트
	250만원 미만	96(16.4)	단독주택		467(78.8)
	250만원 이상	83(4.0)	상가·다가구		33(5.6)
	평균 소득수준 157만원		임대주택		11(1.9)
결혼지위	미혼	190(32.0)	연립·빌라	29(4.9)	
	초혼	370(62.4)			
	재혼	7(1.2)			
	사별	26(4.4)			

자매의 생활비는 장남이 부담해야 한다', '결혼배우는 부모가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 '결혼 후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두어야 한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가치를 부권제, 효, 성역할 태도, 조상숭배를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여 가치의식을 조사한 연구들(서병숙·김윤, 1983; 옥선화, 1975, 1986; 최재석, 1979 등)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 연구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우리사회의 급변기에서도 여전히 산업사회 이전의 부계가족의 기본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동일한 척도로, 10년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조사한 연구(옥선화, 1989)에서는 약간 찬성에 가까운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의식이 90년대를 통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농촌 거주자는 가족주의가치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척도의 범위: 8점-40점, 평균값: 26.31점). 이러한 결과는 10년전 농촌가족의 가족주의가치를 살펴본 연구결과(옥선화, 1990)와 일치하는 것으로, 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 물질주의가치의 전반적 경향

도시 거주자는 보통이하의 물질주의가치를 갖고 있는 것(척도의 범위: 10점-50점; 평균값: 27.6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생을 즐기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싶다',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앞서고 싶다'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필수적인 생활비 성격을 가진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의 지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문화생활과 관련된 외식비, 교육비, 여가비, 개인교통비, 잡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검토 결과(이기영 외, 1996: 59)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 거주자는 보통 수준의 물질주의가치를 갖고 있는 것(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18.6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생을 즐기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싶다', '비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어 속상할 때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모두 살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등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관련된 문항에 보통 수준 이상의 지지를 보였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전반적 경향

도시 거주자는 자녀를 인생과 결혼생활에 보상을 주는 존재로 생각(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22.35점)하는 동시에, 실제 생활 면에서는 부담을 주며, 생활의 리듬을 깨는 비용적 존재로 생각(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21.36점)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보람이 된다'는 자녀의 존재적 의미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자녀를 키우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자녀로 인하여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등의 문항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농촌 거주자는 자녀가 실제 생활 면에서 부담을 주며, 생활의 리듬을 깨는 비용적 존재로 생각(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16.01점)하기 보다는 자녀를 인생과 결혼생활에 보상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23.1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없으면 생활의 재미가 별로 없다', '사람들은 자녀를 키움으로써 인생의 참뜻을 알게 된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보람이 된다' 등의 보상적 자녀관 문항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자녀로 인해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들다' 등의 문항에서 자녀를 부담스런 존재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아선호사상의 전반적 경향

도시 거주자의 남아선호사상은 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척도의 범위: 5점-25점; 평균값: 8.63점). 특히 '딸만 둘 있다면, 남들에게 딸만 있다고 말하기가 싫을 것 같다', '딸은 시집가면 그뿐이다'라는 출가외인 사상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자와 예비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남아선호사상 수준을 조사한 연구 결과(고정자, 1983; 양명숙, 1996)와 일치한다.

농촌 거주자도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척도의 범위: 5점-25점, 평균값: 13.07점). 특히 '딸만 둘 있다면, 남들에게 딸만 있다고 말하기가 싫을 것 같다', '딸은 시집가면 그뿐이다' 등의 출가외인 사상에 대해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5)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수준 비교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을 비교 조사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가족주의가치, 비용적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에서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를 덜 비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남아를 선호하는 가치관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여, 도시 거주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아선호사상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사

〈표 3〉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평균값과 t 검증

지역\변수	가족주의가치 (중간값 : 24)	물질주의가치 (중간값 : 18)	자녀관(중간값 : 18)		남아선호사상 (중간값 : 15)
			보상적	비용적	
도시	22.81	18.54	22.35	21.36	8.63
농촌	26.31	18.69	23.19	16.01	13.07
t 값	-8.75 ***	-0.5	-1.33	21.4***	-4.44***

* 도시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및 물질주의가치 척도의 평균값은 축약척도의 평균값임.

〈표 4〉 도시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55.76(4.93)	F=29.72***
	10대 여성	49.46(3.90)	
	20대 남성	54.18(5.15)	
	20대 여성	48.88(4.03)	
	30대 남성	57.93(5.35)	
	30대 여성	54.26(4.29)	
	40대 남성	60.79(4.92)	
	40대 여성	58.56(4.98)	
	50대 남성	60.93(6.00)	
	50대 여성	61.59(5.58)	
	60대 남성	72.78(4.87)	
60대 여성	71.94(3.52)		
출신 지역	도시 출신	54.79(10.96)	t=-5.35***
	농촌 출신	59.63(12.6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8.50(12.48)	t=3.42***
	초대졸 이상	55.08(10.68)	
소득 수준	낮은 집단	57.82(11.25)	t=2.81***
	높은 집단	54.65(12.34)	
결혼 지위	사별자	66.39(14.42)	F=16.01***
	초혼자	58.09(12.15)	
	미혼자	52.71(9.64)	
	재혼자	48.75(7.27)	
종교	불교	60.68(12.90)	F=7.78***
	천주교	55.84(10.42)	
	무교	55.44(12.38)	
	기독교	55.33(10.87)	
가족 형태	핵가족	56.15(11.36)	F=4.89***
	부계확대가족	60.50(13.83)	
	모계확대가족	51.57(11.91)	
직업 형태	주부	57.55(11.65)	F=2.72*
	은퇴·무직	58.91(13.27)	
	생산·기술·서비스	58.33(11.89)	
	자영업	61.00(11.43)	
	사무직	56.54(12.39)	
	전문·경영	53.67(10.65)	

회 구성원들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가치관은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지역 주민은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였다.

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1) 가족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도시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나 〈표 4〉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20대를 제외하고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이, 도시출신보다는 농촌 출신이, 초대졸 이상 집단보다는 고졸이하 집단이, 소득수준⁵⁾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재혼자, 미혼자보다는 사별자, 초혼자 집단이, 기독교·천주교·무교 집단보다는 불교 집단이, 모계 확대가족을 이루는 집단보다는 부계 확대가족을 이루는 집단이, 전문·경영직 종사자보다는 자영업 종사자가 가족주의가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60대 고연령층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그리고 사별자 집단은 여전히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였다.

한편, 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나 〈표 5〉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50대와 60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여성보다

5)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전체 응답자의 상위 25%에 해당되는 집단과 하위 25%에 해당되는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표 5> 농촌 거주자의 가족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2.86(5.68)	F=58.31***
	10대 여성	20.32(3.65)	
	20대 남성	22.62(5.11)	
	20대 여성	20.78(3.89)	
	30대 남성	27.18(4.67)	
	30대 여성	24.72(5.21)	
	40대 남성	27.13(4.60)	
	40대 여성	26.94(6.05)	
	50대 남성	28.57(5.20)	
	50대 여성	29.49(5.49)	
	60대 남성	32.18(4.19)	
60대 여성	32.29(5.2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28.40(5.81) 23.47(5.04)	t=6.31***
소득 수준	낮은 집단 높은 집단	28.60(6.78) 24.96(5.62)	t=5.12***
결혼 지위	사별자 초혼자 미혼자 재혼자	33.31(5.48) 28.04(5.58) 21.78(4.86) 31.29(5.79)	F=74.84*** a a b a
종교	불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	28.11(6.26) 25.24(6.17) 25.39(6.32) 26.22(4.92)	F=8.69*** a b b ab
가족 형태	핵가족 부계확대가족 모계확대가족 독신가구 노부부가족	24.63(5.99) 26.68(5.17) 24.20(4.21) 33.05(6.06) 32.21(5.06)	F=30.95*** ab ab a b ab
직업 형태	농업 주부 사무직 자영업 생산·기술·서비스 전문·경영직	29.62(5.37) 25.85(6.27) 24.94(4.95) 27.33(6.03) 24.33(5.73) 23.62(5.16)	F=10.11*** a b b b b bb

남성이, 20대와 4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층 집단이, 초대졸이상 집단보다 고졸이하 집단이, 기독교나 무교 집단보다 불교 집단이, 미혼자 집단보다 재혼자·초혼자·사별자 집단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모계확대가족 집단보다 독신가구 집단이, 다

<표 6> 도시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7.11(3.49)	F=20.86***
	10대 여성	24.62(4.38)	
	20대 남성	26.56(4.21)	
	20대 여성	23.95(3.73)	
	30대 남성	28.03(3.78)	
	30대 여성	26.74(4.02)	
	40대 남성	29.52(4.84)	
	40대 여성	28.69(4.56)	
	50대 남성	29.90(4.07)	
	50대 여성	29.88(5.06)	
	60대 남성	34.44(4.27)	
60대 여성	35.00(4.20)		
출신 지역	도시 출신 농촌 출신	26.65(5.87) 29.25(6.53)	t=-5.3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28.51(6.62) 26.88(5.77)	t=3.04***
소득 수준	낮은 집단 높은 집단	28.20(6.01) 26.77(6.32)	t=2.42***
결혼 지위	사별자 초혼자 미혼자 재혼자	32.61(6.97) 28.29(6.38) 25.85(5.39) 24.00(3.37)	F=12.62*** a a b b
종교	불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	29.28(6.85) 26.78(6.47) 27.33(5.87) 27.40(5.28)	F=5.03** a b b ab
가족 형태	핵가족 부계확대가족 모계확대가족	27.36(6.06) 29.72(6.67) 26.79(7.65)	F=3.91** ab a b

른 직종 종사자보다 농업 종사자 집단이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농촌 거주자의 경우에도 10대, 20대 및 미혼자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았다.

2) 물질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도시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 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나 <표 6>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 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20대를 제외하고는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층 집단이, 도시출신보다 농촌출신

<표 7> 농촌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1.45(3.25)	F=4.75***	
	10대 여성	18.84(4.29)		
	20대 남성	19.37(4.04)		
	20대 여성	19.45(4.42)		
	30대 남성	17.89(3.59)		
	30대 여성	18.44(4.76)		
	40대 남성	17.33(4.21)		
	40대 여성	17.76(4.38)		
	50대 남성	16.88(4.70)		
	50대 여성	18.33(4.56)		
	60대 남성	19.32(4.97)		
	60대 여성	19.19(4.63)		
형제 순위	외동 집단	19.83(4.22)	F=3.65* a	
	장자 집단	18.79(4.43)		b
	지차 집단	17.97(4.54)		b
결혼 지위	초혼자	18.06(4.56)	F=6.23*** a	
	미혼자	19.69(3.94)		ab
	재혼자	20.29(6.02)		b
	사별자	19.27(4.94)		ab

이, 초대졸이상 집단보다는 고졸이하 집단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재혼자와 미혼자보다는 사별자와 초혼자 집단이,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인 집단 보다는 불교 집단이, 핵가족 집단보다는 부계 확대가족 집단이 물질주의가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60대 고연령층과 사별자는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였다.

한편, 농촌 거주자의 물질주의가치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표 7>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즉 10대와 60대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장자나 지차 집단보다는 외동 집단이, 초혼자 집단 보다는 재혼자 집단의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도시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중 보상적 자녀관은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나 <표 8>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를 제외하고는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

<표 8> 도시 거주자의 보상적 자녀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1.11(4.63)	F=10.69***	
	10대 여성	21.22(4.20)		
	20대 남성	21.03(4.30)		
	20대 여성	20.91(4.01)		
	30대 남성	22.31(4.67)		
	30대 여성	23.40(4.13)		
	40대 남성	22.95(4.16)		
	40대 여성	22.73(3.23)		
	50대 남성	23.63(3.77)		
	50대 여성	23.68(3.45)		
	60대 남성	25.17(2.50)		
	60대 여성	25.67(2.87)		
출신 지역	도시 출신	21.87(4.24)	t=-3.91***	
	농촌 출신	23.14(4.12)		
결혼 지위	사별자	24.83(4.40)	F=27.92*** a	
	미혼자	20.81(4.28)		b
	재혼자	11.25(2.87)		c
	초혼자	23.05(3.88)		a

종교	불교	22.87(4.47)	F=3.42* a	
	무교	21.58(4.17)		b
	기독교	22.66(4.20)		ab
	천주교	22.27(4.10)		ab

직업 형태	주부	23.49(3.64)	F=3.18** a	
	은퇴·무직자	21.80(4.50)		b
	생산·기능서비스	21.87(4.68)		ab
	자영업	23.05(3.52)		ab
	사무직	22.09(4.61)		ab
	전문·경영	21.51(4.54)		ab

층 집단이, 도시출신보다 농촌출신이, 재혼자나 미혼자보다는 사별자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불교 집단이, 은퇴자나 무직자보다는 주부가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한편, 비용적 자녀관도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나 <표 9>에 제시된 결과처럼, 집단별로 수준차를 보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20대를 제외하고는 고연령층 집단보다 저연령층 집단이, 농촌지역 출신보다 도시 지역 출신이, 초혼자집단보다 미혼자 집단이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한편, 농촌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중 보상적 자녀관의 차이를 관련변수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9> 도시 거주자의 비용적 자녀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1.45(3.45)	F=7.83***	
	10대 여성	21.81(3.54)		
	20대 남성	21.67(3.71)		
	20대 여성	22.84(2.99)		
	30대 남성	20.68(3.44)		
	30대 여성	22.00(3.20)		
	40대 남성	20.72(3.48)		
	40대 여성	21.31(3.87)		
	50대 남성	19.59(4.28)		
	50대 여성	20.80(3.48)		
	60대 남성	19.17(2.85)		
60대 여성	20.50(3.17)			
출신 지역	도시 출신	21.85(3.45)	t=4.69***	
	농촌 출신	20.52(3.78)		
결혼 지위	미혼자	22.03(3.59)	F=4.28** a	
	초혼자	21.08(3.62)		b
	재혼자	18.75(3.86)		ab
	사별자	21.06(3.30)		ab

<표 10> 농촌 거주자의 보상적 자녀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21.32(4.29)	F=10.93***	
	10대 여성	22.80(3.09)		
	20대 남성	21.88(4.43)		
	20대 여성	21.73(3.62)		
	30대 남성	22.58(3.82)		
	30대 여성	22.86(2.98)		
	40대 남성	23.37(3.47)		
	40대 여성	23.72(3.54)		
	50대 남성	23.14(3.40)		
	50대 여성	24.31(3.16)		
	60대 남성	24.66(3.49)		
60대 여성	25.63(2.80)			
소득 수준	낮은 집단	24.12(4.16)	t=2.94**	
	높은 집단	22.85(3.37)		
결혼 지위	사별자	25.69(2.38)	F=22.86*** a	
	재혼자	24.71(2.69)		ab
	초혼자	23.84(3.40)		ab
	미혼자	21.51(3.98)		b
종교	불교	23.59(3.55)	F=3.45* a	
	기독교	23.49(3.37)		ab
	천주교	23.30(2.78)		ab
	무교	22.47(4.32)		b
가족 형태	핵가족	22.48(3.91)	F=9.60*** a	
	부계확대가족	23.53(3.24)		ab
	모계확대가족	24.50(3.56)		ab
	노부부 가족	25.03(3.51)		b
	독신 가구	25.36(2.74)		b
직업 형태	농업	24.04(3.57)	F=2.54* a	
	주부	23.35(3.60)		ab
	은퇴·무직자	23.21(3.83)		ab
	사무직	21.85(3.47)		b
	자영업	23.84(3.47)		ab
	생산·기술	23.20(4.14)		ab
	서비스			
전문·경영	23.38(3.75)	ab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즉 1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층 집단이, 20대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무교 집단보다 불교 집단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핵가족 집단보다 노부부가족 집단 및 단독가구 집단이, 미혼자 집단보다 사별자 집단이, 사무직 종사자 집단보다 농업 종사자 집단이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한편, 농촌 거주자의 경우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표 11>에 제시된 결과처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1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여성보다 남성이, 20대·30대·50대를 제외하고는 고연령층 집단보다 저연령층 집단이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4) 남아선호사상의 관련변수별 차이

도시 거주자는 남아를 선호하지 않았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층 집단이, 초대졸이상 집단보다 고졸이하 집단이, 초혼자나 미혼자·재혼자 집단보다 사별자 집단이, 기독교·천주교·무교 집단보다 불교 집단이, 전문·경영자 집단보다 자영업 종사자 집단의 남아선호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사별자 집단은 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농촌 거주자의 비용적 자녀관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16.93(3.33)	F=3.96***
	10대 여성	17.02(3.70)	
	20대 남성	16.06(3.83)	
	20대 여성	14.02(3.55)	
	30대 남성	17.71(3.95)	
	30대 여성	15.62(4.35)	
	40대 남성	16.87(3.53)	
	40대 여성	15.66(2.74)	
	50대 남성	15.57(4.00)	
	50대 여성	16.20(4.18)	
	60대 남성	15.66(4.23)	
	60대 여성	15.33(4.26)	

<표 12> 도시 거주자의 남아선호사상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성/연령	10대 남성	7.68(3.29)	F=16.93***
	10대 여성	6.05(2.21)	
	20대 남성	8.49(3.95)	
	20대 여성	6.97(3.02)	
	30대 남성	8.62(3.38)	
	30대 여성	8.46(3.37)	
	40대 남성	9.70(3.66)	
	40대 여성	8.64(3.28)	
	50대 남성	9.41(3.56)	
	50대 여성	10.37(4.41)	
	60대 남성	12.50(4.37)	
	60대 여성	12.83(3.11)	
출신 지역	도시 출신	10.41(4.46)	t=-5.75***
	농촌 출신	12.49(5.0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1.92(4.91)	t=3.03**
	초대졸 이상	10.71(4.33)	
결혼 지위	사별자	15.11(5.23)	F=15.95***
	초혼자	11.79(4.70)	
	미혼자	9.59(4.45)	
	재혼자	9.00(4.69)	
종교	불교	12.68(5.00)	F=6.63***
	천주교	10.85(4.05)	
	무교	10.91(4.76)	
	기독교	10.62(4.74)	
직업 형태	주부	11.81(4.93)	F=3.69***
	은퇴·무직자	11.43(5.83)	
	생산·기술서비스	11.70(4.24)	
	자영업	12.62(4.71)	
	사무직	10.89(4.56)	
	전문·경영	10.57(4.57)	

<표 13> 농촌 거주자의 남아선호사상의 관련변수별 차이

변수	평균값(표준편차)		t 또는 F 값
연령	10대	8.85(3.45)	F=43.63***
	20대	10.21(3.58)	
	30대	12.30(4.49)	
	40대	13.56(5.20)	
	50대	15.37(5.00)	
	60대	17.76(4.80)	
소득 수준	낮은 집단	15.02(6.03)	t=5.03***
	높은 집단	11.86(4.89)	
결혼 지위	사별자	19.42(4.79)	F=62.67***
	초혼자	14.40(5.18)	
	미혼자	9.51(3.60)	
	재혼자	16.29(5.53)	
종교	불교	14.67(5.39)	F=9.47***
	무교	12.41(5.55)	
	기독교	11.96(5.15)	
	천주교	12.46(3.90)	
가족 형태	핵가족	11.58(4.82)	F=5.81***
	부계확대가족	13.81(4.90)	
	모계확대가족	10.40(6.07)	
	노부부가족	17.88(4.97)	
	독신가구	18.23(5.70)	
직업 형태	농업	16.12(5.11)	F=12.32***
	은퇴·무직자	14.63(5.23)	
	자영업	13.13(5.20)	
	사무직	12.66(4.83)	
	주부	12.07(4.76)	
	전문·경영	11.00(5.08)	
	생산·기술·서비스	10.73(4.64)	

한편, 농촌 거주자도 남아를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표 13>에 제시된 결과처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저연령층 집단보다 고연령층 집단이, 무교나 기독교 집단보다 불교 집단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모계 확대가족 집단이나 핵가족 집단보다 노부부가족 집단 및 독신가구 집단이, 미혼자나 초혼자 집단보다 재혼자나 사별자 집단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농업 종사자 집단의 남아선호사상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50대 이상 연령층과 독신가구 집단, 사별자 집단, 농업 종사자들은 남아를 선호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첫째, 도시 거주자의 경우 가족주의가치, 물질주의가치, 남아선호사상 수준이 비교적 낮다. 그리고 자녀를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보상적인 존재로 보면서 동시에 비용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경우 여전히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며, 보통 수준의 물질주의가치도 보이며, 자녀가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서 갖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보상적인 존재로 본다. 그러나 도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남아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둘째, 두 지역 모두 하위 집단에 따른 차이는 있어, 도시 거주자의 경우도 60대 고연령층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그리고 사별자 집단은 여전히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며, 60대 고연령층 집단과 사별자 집단은 물질주의가치도 지지한다. 그리고 다른 집단과 달리 재혼자 집단은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며, 사별자 집단은 남아를 선호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도시 거주자라도 출신지역에 따라 모든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출신자도 도시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주의가치, 물질주의가치를 지지하지는 않으며, 보상적·비용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신지역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농촌 거주자의 경우도 10대와 20대 및 미혼자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6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가치를 보이며, 외동이나 장자 집단, 그리고 초혼자와 미혼자 집단이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가치를 보인다. 그리고 농촌 거주자는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나 10대와 50대를 제외한 남성은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본다.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남아를 선호하고, 독신가구 집단과 사별자 집단, 그리고 농업종사자들이 강한 남아선호사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볼 때, 가족과 친족 관련 가치관의 경우 도시 거주자의 경우 탈근대적 모습

까지 보이는데 비해 농촌 거주자들은 여전히 가족주의가치가 가족 및 친족관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남아있는 등 도시 거주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도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 결혼지위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 집단이 보다 근대적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농촌 지역도 현재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주축이 되는 시점에서는 도시와 큰 차이없는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연령으로 대별되는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개인적 또는 친족간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세대가 인척관계로 만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치관 형성기에 경험한 시대적 생활경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세대간의 가치관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는데, 정보화의 흐름에서 소외되기 쉬운 연령층과 정보화에 민감한 연령층이 함께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갈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형태와 기능의 변화는 가족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도시가족에 비해 외면적으로 많이 파괴된 측면이 있는 농촌가족 의식의 일면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갈등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1)는 지적처럼, 농촌지역 주민의 가족 가치관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측면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독신가구가 젊은 미혼층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농촌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층에서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다(권태환, 1992: 49). 농촌지역 독신가구 집단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농촌가족은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변화되어 다양한 가족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 근대, 탈근대의 양상이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집단별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실재를 밝혀주었으며, 우리 가족의 변화 추세를 전망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규명하는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7-38.
- 2)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요약·해석편.
- 3) 권태환 외 13인(1990).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 민음사.
- 4)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2집, 39-56.
- 5) 김경동(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 6) 서병숙·김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27-138.
- 7)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연구. 서울: 문음사.
- 8) 김한구(1978).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6, 3-27.
- 9) 박인덕(1979). 한국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성영신·김철민·고동우(1997). 한국인의 경제가치관에 관한 연구-조선 중·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도서출판 소화.
- 11)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의 재발견. 서울: 문음사.
- 12)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심유중·유홍준·박승희(1995). 산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14)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15) 옥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141-156.
- 16)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10.
- 18) 옥선화(1996). 가족생활의 변화. 이기영, 이은영, 옥선화, 백희영, 홍형욱,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
- 19)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웅·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25.
- 20)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현대인의 결혼관 조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21) 이한기·한귀정(1994). 농촌 가족구조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1), 57-66.
- 22) 이효재(1989).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23)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24) 정범모(1989).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25) 정영숙·이선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2), 36-47.
- 26) 정 준(1997).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모.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27) 조옥라(1985). 농촌가족(II).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사업복지재단.
- 28) 최양부(1985). 농촌가족(I)-산업사회화 과정에서 한국농가의 성격변화와 과제-.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사업복지재단.
- 29)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30) 통계청(1990). 한국인의 사회지표.
- 31) 통계청(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 32) 통계청(1996). 서울통계연보.

- 33)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서울: 대운.
- 34)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35) 한승조(1980).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민주주의. 전통적 가치관과 새가치관의 정립.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36)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37) Belk, R. W.(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38) Fawcett, J. S. Albores, & F. Arnold(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s. In J. Fawcett(ed.).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39) Richins, M. L. &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5.